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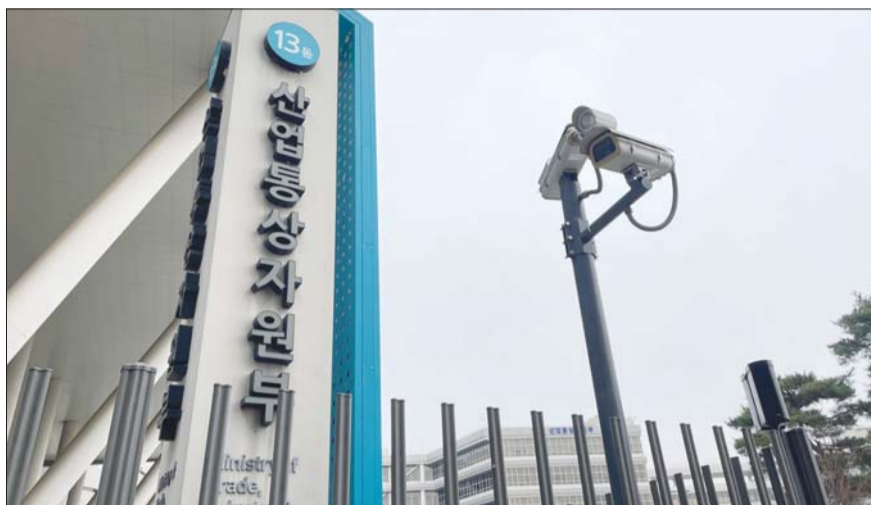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30곳, 효율투자 '1.37조' 역대 최대

산업부, 에너지 효율목표 세미나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평균 2.2%
절약 정책, 기업 실제 효율투자 성과

자동차·시멘트·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이 에너지 효율 개선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효율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목표제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KEEP 30(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등 산업부문 효율목표제도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6일까지 진행되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KEEP 30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5년간(2023~2027년) 에너지 효율을 매년 1%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효율역신 신규 프로그램으로, 2022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0월 협약체결 이후 2023년부터 본격 이행됐다.

참여기업의 첫 해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30개 기업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2.2%로 당초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53%인 16개 기업이 1% 이상 개선율을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자동차(5.7%), 시멘트(5%), 철강(1.3%)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디스플레이

업종 이행실적은 목표치를 하회했다.

KEEP 30과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등 효율개선 정책은 민간의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투자는 2019~2022년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3654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산업부문은 전년 대비 32%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한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 정책이 기업의 실제 효율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현장의 효율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비 교체, 공정개선, 데이터 활용 등 효율혁신 투자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5~2029)'에 산업부문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aT

'과천 바로마켓' 행사

농축수산물 3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추석명절을 맞아 경기 '과천 바로마켓'에 농축수산물 할인·경품 뽑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과천 바로마켓은 전국 각지의 120여 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로, 한국마사회의 장소 제공을 받아 과천 경마공원에 조성됐다.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2009년부터 바로마켓 개설을 지원해 현재까지 16년째 운영 중이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에게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할인 구매를 돕는다. 이외에도 대표장터, 정례장터 등 전국 각지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 중이다.

올해 추석에는 과천 바로마켓에서 성수품·제수용품(과일, 송편, 모듬전 등)을 중심으로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싼값에 구매할 수 있다. 특상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마련돼 있다. 선물세트 구매 시 보자기포장 및 택배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기질 개선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 마련

환경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유튜브 중계 등 온라인 방송 예정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5명 표창

환경부는 외교부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5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의 정부 기념식은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며, 유튜브 중계 등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투자(Invest in #Clean Air Now)'로, 대기오염 극복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개인 모두의 시간, 자원,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해 올해 주제를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로 정했다.

정부는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단체, 허세진 한국생산성분부 선임전문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손정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연구사, 박성욱 한양대학교 교수,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 학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오는 5일 서울 광진구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한다. 경기도에서는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인천광역시에서는 친환경 실천 체험 행사, 경상남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55건의 연계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한다.

외교부는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4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오는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 간 조율의 필요성 ▲월경성 대기오염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제5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포스터. /환경부

맞아 대기질을 위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연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통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유엔본부·위싱턴·알마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김대환 기자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청년 등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우선,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에서 1개월 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의 훈련 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웰텍 등 녹색산업 발전 기여 기업 선정

환경부,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선정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 환경기술대상'은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 환경기술을 선발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에서는 '금호타이어'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웰텍'과 '주식회사 나노'는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에서는 '엘디카본'과 '알링크'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각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저크'와 '아코플레싱'은 우수상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2개 부문 모두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 상금 700만 원과 500만원이 부여된다.

/김대환 기자

한난, 주주가치와 내부통제 선진화 추진

상장 공기업 내부 통제체계 동반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비롯한 상장 공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내부통제체계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한난은 지난 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총 7개 상장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동반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

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감사기구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내부통제 강화 전략 ▲효과성 진단 방법론 ▲고유위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상장 공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동반 선진화를 도모한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정부 정책의 이행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상장 공기업의 책무"라며 "내부통제체계를 선진화해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장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